



김은주 기자

kej@steelsteel.co.kr

스틸데일리

특집 2 분기전망-중국

중국 상황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올해 1분기 중국 철강 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과거 춘절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구체적인 부양책이 부재한 채 실망감 속에 폐막했다.

2분기 상황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기대론과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계는 2분기 철강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한국 철강업계는 이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中, 바닥 확인 후 반등 나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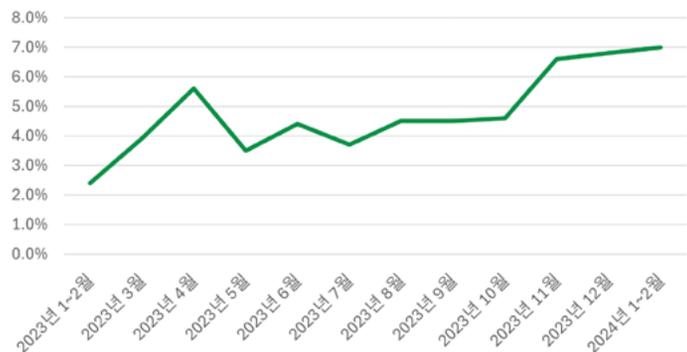
중국 철강업계가 2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1~2월 실물 경기지표를 통해 중국 경기 회복세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국 철강매체 LGMI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해 지난해 12월 대비 0.2%포인트 개선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4.6%포인트 개선됐다.

1~2월 고정자산투자도 4.2% 증가해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인프라투자는 6.3% 늘었고, 제조업투자는 9.4% 증가했으며, 각각 지난해 연간 수준보다 0.4%포인트, 2.9%포인트 개선됐다.

중국 산업생산

자료: 국가통계국



비록 1~2월 부동산개발투자가 9% 감소해 고정자산투자 증가에 발목을 잡았지만, 감소 폭을 지난해 연간 (9.6%) 수준보다 0.6%포인트 축소한 점이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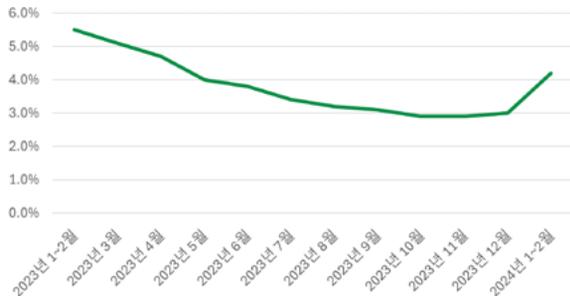
철강 수출도 호조를 나타냈다. 1~2월 철강 수출량은 1,591.2만 톤으로 32.6% 큰 폭 늘었다. 해당 기간 기계 및 가전제품 수출액은 2.2조 위안으로 11.8% 증가해 철강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이 동반 호조를 보였다.

중국 철강업계는 제강사들의 감산 움직임도 시황 개선에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제강사들은 철강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발적인 감산에 들어가고 있다.

3월 초 원난성철강협회는 공시를 통해 7개 제강사가 3월 건설용 철강 생산량을 약 50만 톤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난성을 시작으로 광둥성과 산둥성 등에서도 감산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왕원 철강 애널리스트는 2분기 철강 가격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공급 측면에서 3월 중 하순 제강사들의 전반적인 감산으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다운스트림 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자금 부족 문제도 완화되면서 시장 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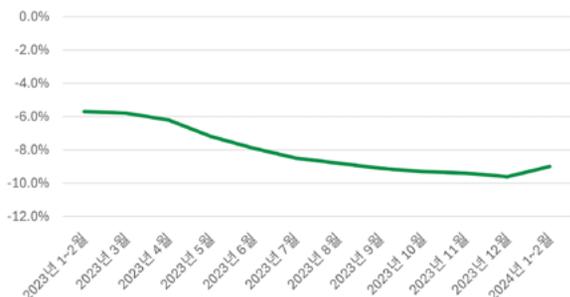
중국 고정자산투자 자료: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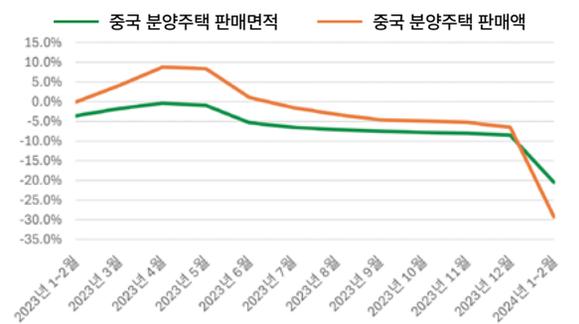
중국 소매판매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부동산개발투자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분양주택 판매면적 및 판매액 자료: 국가통계국



종합적으로 볼 때 생산량 감소와 수요 호전 등이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4월 철강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5~6월 이후에는 수급 불균형도 재차 불거지면서 가격이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韓, 2분기도 좋아지기 어려워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 2분기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비관적이다. 철강 수요의 핵심인 부동산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지표가 여전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주택 착공면적은 30.6% 감소했고, 주택 준공면적은 20.2% 감소했다. 특히 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산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지난해 중국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감산 혹은 생산 중단에 들어갔지만,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조강 생산량은 10.2억 톤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전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한 바 있다.

무엇보다 감산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기보다는 제강사들의 자발적인 차원에 머무르다 보니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건설업 한파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부터 조강 생산 제한 조치를 도입해 감산을 추진해왔으나, 경기 안정화를 위해 사실상 공급 과잉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이번 감산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의 이유진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지속 중이기 때문에 감산으로 인한 펀더멘털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상황 개선은 감산만으로 줄어들기는 부족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내 부동산 수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절적 수요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월 성수기에 돌입했음에도 예년과 달리 수요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철강 재고량이 15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여전히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 시장은 현재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하락 사이클에 놓여 있다.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년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다각적으로 생각해도 좋아질 만한 소식이 없어 보인다”면서 “2분기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고,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철강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⑤